

오대산의 풍수지리학적 위상과 탄허의 화엄학적 풍수관*

권기완(문광)**

• 목 차 •

- I. 머리말
- II. 오대산의 풍수지리학적 위상
 - 1. 오대산이라는 장소의 힘
 - 2. 이능화의 『오대불궁 산중명당(五臺佛宮 山中明堂)』
 - 3. 적멸보궁의 풍수지리학적 고찰
 - 4. 상원사는 보천과 효명의 원찰(願刹)
- III. 탄허의 화엄학적 풍수관
 - 1. 오대산 고승들의 풍수 안목
 - 2. 탄허와 풍수
 - 3. 화엄학의 무애와 차별지로 풍수학 수용
 - 4. 보현 보살행으로서의 대승풍수와 공익풍수
- IV. 맺음말

* 본 연구는 2022년도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아사리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아사리.

© 『大覺思想』 제37집 (2022년 6월), pp.215-253.

한글요약

오대산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이미 『삼국유사』에서 명당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의 이능화는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敎通史)』에서 오대산 적멸보궁을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한 산중 명당’으로 기록함으로써 풍수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자장율사의 봉안으로 확고하게 인식되게 하려는 의도적인 서술을 남겼다.

본 연구는 이능화의 역사기록에서 ‘명당’으로 특필된 오대산과 적멸보궁, 상원사와 월정사를 풍수지리학적으로 재고찰함으로써 한국의 풍수지리학에서 오대산이 갖는 지위와 위상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아울러 오대산의 역대 고승인 자장, 보천, 효명, 나옹, 한암의 뒤를 이은 탄허의 풍수지리학 적 안목과 풍수관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탄허는 화엄학의 무에 사상과 차별지(差別智)에 입각하여 풍수학을 보살행의 일환이자 방편으로서의 술학(術學)의 차원에서 광대하게 포섭하였다. 본인이 거처했던 도량과 직접 소점하여 불사했던 암자, 그리고 국가 주요 시설의 입지를 위해 풍수 안목을 유감없이 발휘했는데, 이 일화들을 통해 탄허의 풍수관이 화엄의 보현 보살행에 입각한 대승풍수와 공익풍수의 정신이었다.

한국의 불교 풍수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오대산의 풍수지리학적 위상과 오대산의 역대 고승들의 풍수 안목과 풍수관의 고찰은 향후 불교적 풍수사상의 특징은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좋은 선행연구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오대산, 풍수지리학, 적멸보궁, 이능화, 탄허, 화엄학, 무애, 차별지, 대승풍수, 공익풍수

I. 머리말

오대산(五臺山)은 민족의 성산(聖山)이자 한국 풍수학(風水學)의 요람이다. 중대(中臺)의 적멸보궁(寂滅寶宮)은 한국 최고의 명당 가운데 한 곳이자 불교 풍수의 최고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풍수지리학이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학술적으로 정립되기 이전에 성지가 구축된 한국인 고유의 안목을 보여주는 한국적 풍수의 요람이라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기 충분하다.

한국 불교사를 보다 정밀하게 연구하고 한국불교의 글로벌한 측면과 로컬한 측면을 함께 아울러 심층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한국불교의 역사에서 풍수지리학이 차지하고 있는 지점들을 더욱 다양하게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선가(禪家)에서 흔히 공부의 3대 요건으로 도사(道師), 도량(道場), 도반(道伴)을 거론한다. 수행에 있어서 ‘도량’을 스승 다음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대혜종고 선사 역시 간화선의 근본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서장』에서 위산 선사의 법어를 인용하여 법의 깃발을 세우고 한 곳에서 중지를 드러내려면 다섯 가지 인연을 갖추어야 성공할 수 있는데 그중 ‘토지연(土地緣)’¹⁾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거론했다.

이능화(李能和, 1869-1943)는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敎通史)』에서 오대산의 적멸보궁(寂滅寶宮)을 조선 최고의 명당으로 기술한 바 있다.²⁾ 본고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여 적멸보궁과 상원사를 중심으로 오대산의 풍수지리학적 위상에 대해 살펴보고, 오대산의 명당입지를 선정했던 오대산의 역대 고승들의 풍수 안목과 이를 이은 탄허(呑虛, 1913-1983) 선

1) 『서장』, 「答鼓山遠長老」, “昔滬山謂仰山曰 建法幢立宗旨於一方, 五種緣備, 始得成就, 五種緣 謂外護緣, 檀越緣, 衲子緣, 土地緣, 道緣.” 대혜종고가 위산이 양산에게 했던 법문을 인용하여 제시한 5가지 인연은 토지연(土地緣), 외호연(外護緣), 납자연(衲子緣), 도연(道緣), 단월연(檀越緣)이다.

2)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역주편찬위원회 역편, 『역주 조선불교통사 4: 하편 이백품제(1)』,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0, pp.279-289.

사의 화엄학적 무애와 차별지의 측면에서 풍수학을 방편으로 널리 수용한 사례들을 분석하고 그의 풍수관을 대승풍수와 공익풍수라는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한국불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 고승들이 사찰의 입지를 결정하고 불사와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풍수지리학적 지식과 안목이 중요하게 활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고찰하는 것은 한국 불교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민족이 이 국토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 땅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값진 성찰을 제공해 주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오대산의 풍수지리학적 위상

1. 오대산이라는 장소의 힘

『삼국유사』의 「대산월정사오류성중(臺山月精寺五類聖衆)」조에는 “땅의 상을 보는 이가 말하기를 국내의 명산 중에 이 땅이 가장 수승하니 불법이 길이 흥할 곳이라고 했다”³⁾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아울러 『삼국유사』에서 오대산은 백두산의 대맥⁴⁾임을 밝히고 있어서 백두대간에서 중요한 지점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오래전부터 오대산이 지리적 중심지로 여겨지고 나라 전체에서 최고의 명당 길지 가운데 한 곳으로 손꼽혔음을 알 수 있다. 명산인 오대산은 자장(慈藏, 590-658)율사에 의해서 문수보살(文殊菩薩)의 진신(眞身) 상주처가 되기 시작했다. 이는 한국 화엄의 성지가 개산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후로 오대

3) 『三國遺事』, 「塔像第四-臺山月精寺五類聖衆」, “相地者云, 國內名山, 此地最勝, 佛法長興之處云云.”

4) 『三國遺事』, 「塔像第四-臺山五萬眞身」, “此山乃白頭山之大脈, 各臺眞身常住之地.”

산은 한국불교의 중심지의 역할을 해 왔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제임스 롭슨 교수의 저서 『장소의 힘(Power of place)』⁵⁾은 한국 오대산의 풍수와 성산(聖山)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그는 중국의 오악(五嶽) 가운데 남악(南嶽)인 형산(衡山)을 연구하며 이 성스러운 산의 독특한 장소의 힘을 풍수지리학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이를 ‘풍수(風水, Feng-Shui)’라는 용어에 가둬두지 않고 이 성스러운 산이 지닌 독특한 장소의 힘에 대해 ‘종교 지리학(religious geography)’이라는 술어를 사용해 가며 ‘지리 역사학적(geohistorical)’ 분석을 가하였다.⁶⁾ 즉 중국의 남악이 도교가 들어가면 도교의 성지가 되고, 불교가 들어가면 불교의 성지가 되었던 사실에 주목하고 이 남악이라는 장소에 특별한 힘이 존재함을 발견하면서 이에 대해 풍수지리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적인 장소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한국의 오대산은 불교로서는 문수보살과 화엄의 성지이며, 유교로서는 『조선왕조실록』을 보존한 사고(史庫)이며, 도교의 위상과 무속의 전통까지도 담지하고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⁷⁾ 그런 점에서 이 ‘장소의 힘’이라는 말은 오대산에 가장 부합하는 용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공간학(space studies)’⁸⁾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찌 보면 현재 우리가 연구하는 오대산의 로컬리티에 대한 가장 적합한 예가 될 수도 있으리라

5) James Robson, *Power of place: The Religious Landscape of the Southern Sacred Peak(Nanyue南嶽) in Medieval China*, Harvard University Asia Press, 2009.

6) 위의 책, pp.5-7.

7) 이와 관련해서 오대산 월정사 문도회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의 문화적 완성과 오대산 유네스코 복합유산 추진을 위한 세미나’를 2019년 4월 27일(토)에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 제1차로 개최하였고, 제2차 세미나는 2020년 8월 21일(금)에 서울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였다. 오대산의 불교, 유교, 도교, 무속, 자연생태 등의 다각적인 주제로 종합적인 문화유산으로서의 성격을 담은 바 있다.

8) James Robson, 앞의 책, p.6.

생각된다. 한국에는 이러한 특별한 장소성을 가진 성소(聖所)와 성산(聖山)이 많다. 사람의 자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하여 지어진 풍수학 저작의 이름이 ‘인자수지(人子須知)⁹⁾였다면, 실제로 불교를 연구하려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불자수지(佛子須知)’의 학문이 바로 풍수지리학이요 장소성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능화의 『오대불궁 산중명당(五臺佛宮 山中明堂)』

이능화는 『조선불교통사』에서 오대산에 대해 매우 특이한 서술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오대산을 논하면서 자장율사를 오대산 적멸보궁과 월정사의 창건자로 의심 없이 확정했으며, 오대산의 적멸보궁은 한국 불교사에서 최고의 명당터라는 측면을 적극 부각시켰다. “오대산 적멸보궁은 부처님 사리를 봉안한 산중 명당”¹⁰⁾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적, 고증적 관점보다는 풍수지리학적 관점을 강조하여 오대산을 대서특필한 양상을 보여준 것이다. 한국불교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오대산 적멸보궁을 수승한 명당이라는 관점을 대두시키면서 한국불교 최고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점은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능화의 『오대불궁 산중명당(五臺佛宮 山中明堂)』의 세부내용을 살펴보자. (인용문의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는 필자가 임의로 기록하여 설명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삼국유사』의 오대산 사적(五臺山 史蹟)을 살펴보면, ① “상지자(相地者)가 말하기를 ‘국내 명산 가운데 이곳이 최승의 명승지이며, 불법이 오래도록 흥할 곳이다’”라고 하였다. 신라의 자장율사가 당 오대산에 들어가 문수의 화신을 알현하고, 불골(佛骨) 및 가사(袈裟)를 받았다. ② (문수의 화신)이 일러 말하기를, “경의 본국 명주 땅에 오대산이 있는데, 1만의 문수

9) 김동규 역저, 『人子須知』, 명문당, 2008.

10) 이능화, 앞의 책, p.279.

가 상주하는 진신(眞身)의 처소이다. 경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찾아보고 예참(禮參)하시오.”라고 하였다. 이후 ③ 자장이 귀국하여 강릉 오대산 지로봉(地爐峰)에 올라 불뇌(佛腦) 및 정골(頂骨)을 봉안하고, 그곳에 월정사를 창건하였다. 13층탑(즉 大和塔이다)을 세우고, 탑에 불사리 37매를 봉안하였다.

④ (지금 사람들이 서로 전하기를 상원사 중대 적멸보궁은 곧 자장율사가 불뇌를 봉안한 곳이라 한다.)¹¹⁾

위와 같은 이능화의 서술은 모두 역사기록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다. 실제 그 출전과 원문을 일연과 민지의 글에서 함께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삼국유사(三國遺事)』의 『대산월정사 오류성중(臺山月精寺五類聖衆)』, “相地者云, 國內名山, 此地最勝, 佛法長興之處云云.”

② 『오대산 사적기(五臺山事蹟記)』의 『봉안사리 개건사암 제일조사전기(奉安舍利開建寺庵第一祖師傳記)』, “卿之本國, 溟洲之地, 亦有五台山, 一萬文殊眞身之所也. 卿還本國, 可往親參.”

③ 『오대산 사적기(五臺山事蹟記)』, 『봉안사리 개건사암 제일조사전기(奉安舍利開建寺庵第一祖師傳記)』, “五臺山登地爐峰, 奉安佛腦及頂骨, 立碑於伽羅墟(碑則隱而不現), 以紀其蹟因創月精寺建十三層塔奉安舍利三十七枚於塔心.”

④ 今人相傳上院寺中臺, 寂滅寶宮, 卽藏師奉安佛腦之處云.

이능화가 『조선불교통사』에서 언급한 오대산에 대한 모든 내용은 역사적 전거가 있는 문장이다. 그러나 위의 문장을 분석하지 않고 따라 읽다 보면, 오대산의 적멸보궁에 사리를 봉안한 인물도 자장율사며, 애초에 월정사를 정식으로 창건한 것도 자장율사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삼국유사』에서는 자장율사의 사리 봉안은 경주의 황룡사, 태화사탑, 통도사 계단 세 군데 이외에는 어디에 봉안했는지 알 수 없다고 기

11) 위의 책, pp.279-280.

록되어 있다.¹²⁾

자장이 오대산 적멸보궁에 사리를 봉안했다는 내용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한 세대 이후인 민지(閔漬, 1248~1326)가 남긴 기록에서이다. 일연(一然, 1206~1289)의 기록에 보이지 않던 것이 민지의 『오대산 사적기』¹³⁾에서 보이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사학계에서는 과연 현재의 적멸보궁에 자장이 사리를 봉안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이능화는 그것에 대한 의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대산 적멸보궁은 천하의 명당이며 여기에 사리를 봉안하고 월정사를 창건한 개산조는 자장율사며, 사람들이 전해오는 바에 입각해서 적멸보궁에는 불뇌 사리가 봉안되어 있다고 확신까지 심어주는 것이다.

이능화의 의도는 분명 오대산 적멸보궁의 위대함과 성스러움을 강조하고자 하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고의 명당 길지로 유명한 적멸보궁에 사리가 모셔져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사실이며, 이에 대해 자장의 봉안 여부에 대해 의심을 가지는 것은 신심을 증장하고 기도를 성취하는 데 불필요한 의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게다가 자장과 적멸보궁의 관계가 초기 기록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불과 40여 년 뒤에 민지가 『오대산 사적기』 나타나서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 같다.

한국불교의 최고 명당 가운데 하나인 오대산의 적멸보궁은 문수보살이 나타나 전해주시는 사리를 자장율사가 여법하게 봉안해 놓은 영원한 보궁이자 성지가 되어야만 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시대적 배경도 작용

12) 『三國遺事』, 「塔像第四-前後所將舍利」, “자장 법사가 가져온 부처님의 두 골과 어금니와 불사리 1백 알과 부처님이 입던 붉은 김에 금점이 있는 가사 한 벌이 있었는데, 그 사리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한 부분은 황룡사 탑에 두고, 한 부분은 태화사 탑에 두고, 한 부분은 가사와 함께 통도사 계단에 두었으며 그 나머지는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 없다. (慈藏法師所將佛頭骨佛牙佛舍利百粒, 佛所著緋羅金點袈裟一領, 其舍利分爲三, 一分在皇龍塔, 一分在大和塔, 一分并袈裟在通度寺戒壇, 其餘未詳所在.)”

13) 閔漬 撰, 「奉安舍利開建寺庵第一祖師傳記」, 『五臺山 事跡記』

한 것으로 보인다. 1918년에 간행된 『조선불교통사』는 일제시대 우리의 모든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했던 온갖 일제의 역사기술에 저항하고자 했던 시대의 저작이다. 현재 우리가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5대 적멸보궁이 모두 자장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확실히 믿고 있는 그 이면에는 이와 같은 우리 선대의 오대산과 적멸보궁에 대한 애달픈 애착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이능화의 오대산 적멸보궁에 대한 역사기록은 남아 있는 기록들 가운데 오대산의 풍수지리학적 위상을 가장 잘 드러내어 주는 기록이라 할 수 있겠다.

3. 적멸보궁의 풍수지리학적 고찰

오대산 적멸보궁의 풍수지리에 대해서는 입지와 주변 지형¹⁴⁾ 방면과 형세적 관점과 이기론적 관점¹⁵⁾에서 상당한 연구가 진척되어 있다.

오대산은 비로봉(1,563m)을 주봉으로 하여 남서쪽으로 소대산(1,270m), 호령봉(1,560), 소계방산(1,490)으로 내려오고 동쪽으로 상왕봉(1,493m), 두로봉(1,422m), 동대산(1,434m), 노인봉(1,338m)으로 뻗어내린다. 각각의 봉우리들이 적멸보궁을 에워싸며 장풍(藏風)의 보국을 형성하고 있고 봉우리들 사이로는 비교적 깊은 협곡을 형성하며 오대천을 이루어 남쪽으로 흐른다.

적멸보궁은 오대산의 주봉인 비로봉을 태조산으로 하여 오대산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오대산의 5대 가운데에서도 중대(中臺) 사자암이 바로 적멸보궁과 함께 오대산의 중심축에 있으므로 그 이름에서부터 오대산의 중심임을 짐작할 수 있다.

사진에서 보듯 적멸보궁으로 행룡(行龍)하는 용맥은 생룡(生龍)의 모

14) 이학동, 「五臺山 寂滅寶宮의 立地形勢와 風水地理的 解析」, 『역사와 실학』 14, 역사실학회, 2000.

15) 박정해, 「오대산 적멸보궁 입지의 풍수환경과 해석」, 『동아시아 불교문화』 23,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5.

습으로 매우 변화무쌍하고 활달한 기세를 타고 흘러오다가 보궁의 혈처 뒤편에서 사람 얼굴의 산근(山根)과 같이 짧고 낮게 결인(結咽)을 형성한 다음 힘차게 솟아올라 원돌(圓突)한 산봉우리인 만두(饅頭)를 형성한다. 그 만두 밑에 진혈(眞穴)인 혈처(穴處)에 강력한 힘을 쏟아부어 주고 있다. 적멸보궁은 높은 봉우리에 혈을 맺은 천혈(天穴)이라 할 수 있는데, 높은 곳에 진혈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보궁을 둘러싸고 있는 사신사(四神砂) 역시 모두 1,000m를 웃도는 높은 봉우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¹⁶⁾

비로봉 정상에서 주위를 돌아보면 적멸보궁이 입지하고 있는 내룡(來龍)을 산봉우리들이 첩첩이 둘러싸고 있어 마치 성의 울타리와 같다고 하여 ‘나성원국형(羅城垣局形)’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그림2> 참조).¹⁷⁾

많은 전문가들은 적멸보궁에 대해서 ‘기룡혈(騎龍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혈을 맺은 용이 다시 앞을 향해 행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는 용의 중간에 혈을 맺은 기룡혈로 본 것이다. 혈을 맺고 남은 여기(餘氣)가 앞으로 20여 미터를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적멸보궁 앞에 길게 뻗어있는 전순(鼉脣)이 이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그림5> 참조). 한마디로 오대산 적멸보궁은 기룡혈을 맺은 대표적인 경우로 파악되는 것이다.¹⁸⁾

기룡혈은 괴혈의 하나인데 용의 등뼈에 해당하는 행룡이 그 역량이 강력하여 혈을 맺은 뒤에도 남은 기운이 있어서 여력이 계속 달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가 있게 되었다.¹⁹⁾ 일반적으로 앞으로 계속 달려 나가는 산은 혈을 맺지 못한다고 하지만 기룡혈은 혈을 맺은 뒤에도 나아가서 많은 혈을 맺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적멸보궁의 혈

16) 위의 논문, pp.586-587 참조.

17) 이학동, 앞의 논문, p.955.

18) 박정해, 앞의 논문, p.590.

19) 김성수, 『명당』, 신아출판사, 2013, p.368.

쳐는 강력한 기운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기룡혈이라는 설명까지 동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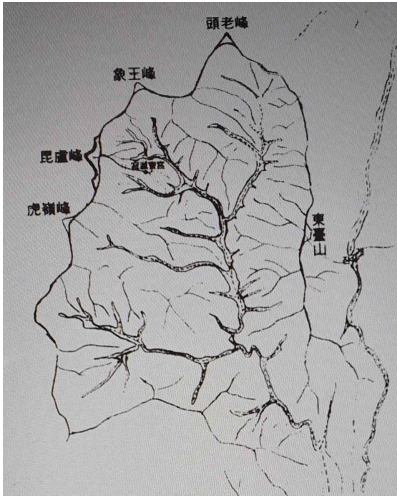
현재 적멸보궁은 매우 작은 법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앞쪽으로 길게 기운이 전개되고 있는 전순 공간은 잔디를 심어두고 금줄을 쳐 놓아 출입을 막고 있다. 하지만 이 공간 역시 예배와 수행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보다 많은 불자들이 한반도 최고 명당의 생기(生氣)를 흠뻑 감응(感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적멸보궁에 대한 형국론적 설명은 다양하다. 이러한 물형(物形)으로, 저러한 형국(形局)으로 설명해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오대산 적멸보궁은 천하의 명당 중의 명당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궁을 용의 형상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다양하여 ‘비룡상천형(飛龍上天形)’, ‘비룡입수형(飛龍入首形)’, ‘비룡함주형(飛龍含珠形)’, ‘구룡쟁주형(九龍爭珠形)’과 같은 다양한 형상으로도 보궁을 설명하고 있다.²⁰⁾ 공통된 것은 적멸보궁터가 용의 여의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그림8> 참조). 비룡상천형은 걸인목에서 한 번 내려왔다가 보궁 뒤의 만두에서 솟아오른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비룡이 하늘로 올라가는 형국임을 일컫는 것이요(<그림6> 참조), 비룡입수형은 솟구쳐 올라가는 모습에서 용이 머리를 번쩍 들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일 것이다. 비룡함주형은 용이 혈처인 보궁자리의 여의주를 머금었다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며, 구룡쟁주형은 비로봉, 호령봉, 상왕봉, 두로봉, 동대산 등의 모든 산들이 적멸보궁을 호위하고 있는 모습을 마치 수많은 용[9는 양수의 극수임]이 여의주를 다투고 있는 모습으로 설명한 것이다. 오대산의 5대 전체가 이 적멸보궁을 향하여 읊을 하고 있으며, 보궁터는 바로 이러한 오대산의 핵심의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궁이 자리한 곳은 바로 용의 머리 부분이고 보궁에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용안수(龍眼水)라는 우물이 있는데 이곳은 용의 눈이 위치하는 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20) 박정해, 앞의 논문, pp.594-595.

적멸보궁 건물은 해좌사향(亥坐巳向)²¹⁾ 건물로 1645년에 증건되었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을 뿐, 언제부터 보궁이 존재하고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²²⁾ 적멸보궁의 입수룡은 건룡(乾龍)이며, 신득수(申得水)에 을파(乙破)이다. ‘길한 방위에서 득수하고 흉한 방위로 흘러나가야 한다’는 조선에 유행했던 호순신(胡舜臣)의 『지리신법(地理新法)』의 이론에 잘 들어맞는다고 한다.²³⁾ 보궁이 전형적인 조선시대의 건물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림 1> 오대산의 구조형곡²⁴⁾



<그림 2> 오대산맥의 내룡맥²⁵⁾



21) ‘건좌사향’이라는 답사 결과를 제시한 책도 있다. 정석풍수연구학회, 『풍수유적답사기 : 강원도편』, 청어람 M&B, 2019, p.426.

22) 이강근, 「상원사 적멸보궁의 건축사적 의의」, 『월정사 성보박물관 학술총서』 3, 월정사 성보박물관, 2002, p.104 재인용.

23) 박정해, 앞의 논문, pp.593-5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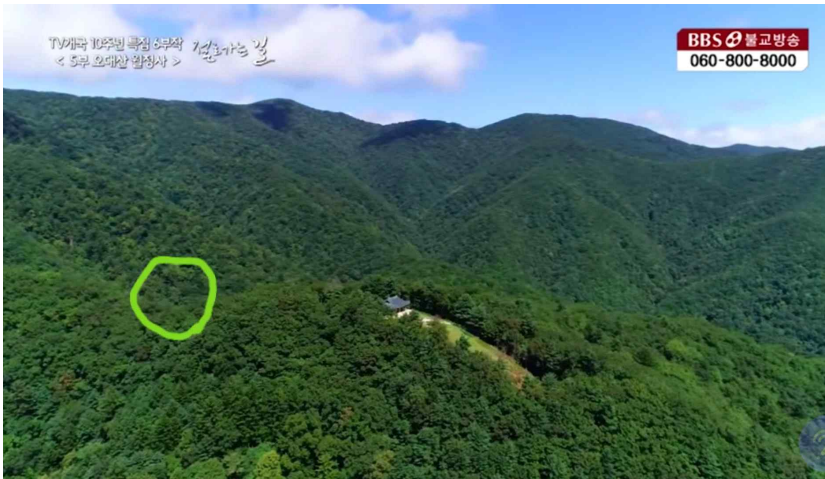
24) 이학동, 앞의 논문, p.933 재인용.

25) 위의 논문, p.945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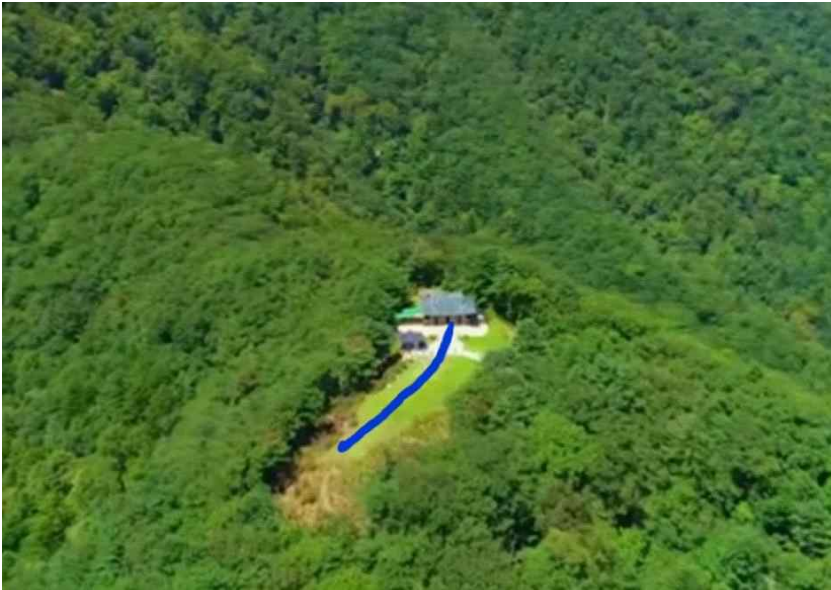
〈그림 3〉 뒤에서 본 오대산 적멸보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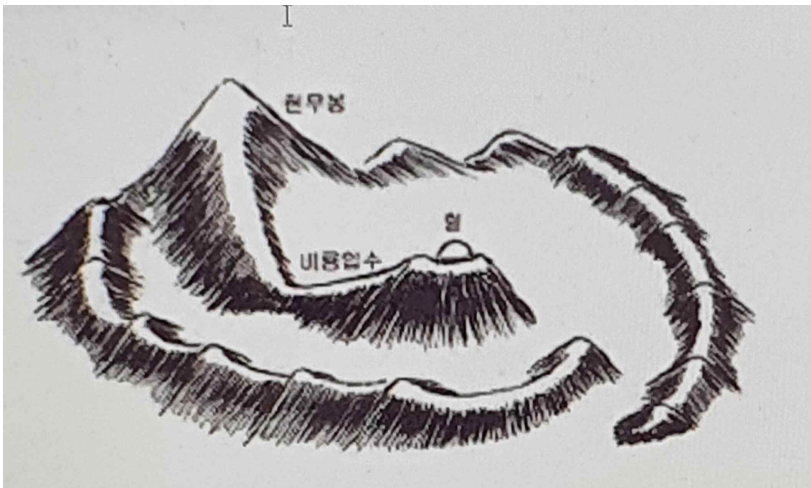
〈그림 4〉 옆에서 본 오대산 적멸보궁과 결인목



<그림 5> 앞에서 본 적멸보궁과 전순(氈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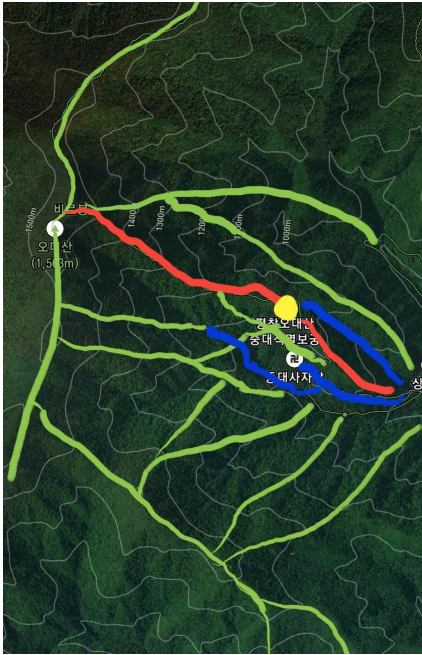


<그림 6> 오대산 적멸보궁의 비룡입수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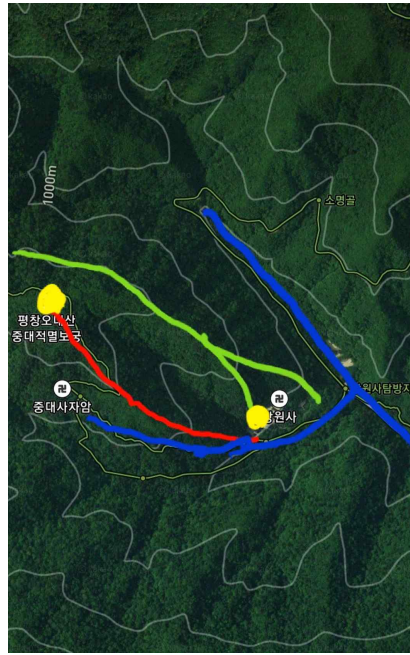


26) 박정해, 앞의 논문, p.595 재인용.

<그림 7> 적멸보궁의 용맥과 혈



<그림 8> 상원사의 용맥과 혈



4. 상원사는 보천과 효명의 원찰(願刹)

상원사(上院寺)는 적멸보궁에서 작혈(作穴)한 뒤 급격하게 내려오는 용맥을 우백호로 삼고, 적멸보궁의 좌청룡이었던 용맥이 주맥과 좌청룡을 형성하고, 비로봉 옆의 호령봉에서 내려오다 우선회한 봉우리가 남주작으로 앞을 짝 틀어막아 형성된 명당 길지이다(<그림8> 참조).

상원사는 조선 시대의 신미(信眉)와 세조(世祖)의 인연, 세조가 문수동자를 친견하여 피부병이 나은 일화 등이 전해져오는 왕실의 원찰이었던 곳으로 그 명성이 월정사 못지않았던 가람이다. 근세의 선지식이었던 한암(漢巖, 1876~1951)과 탄허가 주석하면서 더욱 선풍을 드날려서 조선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명찰로 유명세를 잇고 있는 도

량이다. 상원사는 그 역사적 지위와 풍수지리학적 측면, 문수성지로서의 입지 등에서 월정사보다 훨씬 풍부한 고증과 사료를 간직하고 있다. 본 고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상원사의 역사에서 신라의 보천(寶川)과 효명(孝明) 태자의 '진여원(眞如院)'에 대한 부분을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라 왕실의 왕위를 계승한 효명태자가 성덕왕(聖德王)이 되어 직접 왕실의 원찰로 상원사의 전신인 진여원을 창건했고, 보천태자가 항상 문수보살의 36형태의 화신을 친견했다는 부분은 그 역사를 조금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보천태자는 진여원을 문수보살을 예찬하는 '화엄사(華嚴社)'로 발전시키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이러한 역사적 맥락이 그대로 조선에 이어져 문수동자가 나투었고, 근·현대에 한암과 탄허 양대 선사가 『화엄경』을 강론하고 완역하게 된 인연으로 화엄정신이 계승되어 왔다. 먼저 『삼국유사』의 「대산오만진신」조를 살펴보자.

날마다 인시에 문수보살이 진여원 <지금의 상원(上院)>에 이르러 36가지 모양으로 변신하여 나타났다. 어떤 때는 불면형(佛面形)으로 나타나고, 금주형(寶珠形), 불안형(佛眼形), 불수형(佛手形), 보탑형(寶塔形), 만불두형(萬佛頭形), 만등형(萬燈形), 금교형(金橋形), 금고형(金鼓形), 금종형(金鍾形),神通형(神通形), 금루형(金樓形), 금륜형(金輪形), 금강저형(金剛杵形), 금옹형(金甕形), 금전형(金鈿形), 오색광명형(五色光明形), 오색원광형(五色圓光形), 길상초형(吉祥草形), 청련화형(靑蓮花形), 금전형(金田形), 은전형(銀田形), 불족형(佛足形), 뇌전형(雷電形), 내용출형(來湧出形), 지신용출형(地神湧出形), 금봉형(金鳳形), 금우형(金鳥形), 마산사자(馬產師子形), 계산봉형(雞產鳳形), 청룡형(靑龍形), 백상형(白象形), 작조형(鵲鳥形), 우산사자형(牛產師子形), 유저형(遊猪形), 청사형(靑蛇形)을 지었다. 두 태자는 매양 골짜기의 물을 길어와 차를 다려서 공양하고 밤이 되면 각기 암자에서 도를 닦았다. … 중략 … 신룡(神龍) 원년(705) <성덕왕(聖德王) 즉위 4년> 을사 3월 초4일 처음으로 진여원(眞如院)을 개창하니 대왕이 백료를 친히 거느리고 산에 이르러 전당(殿堂)을 세우고 아울러 문수보살의 소상을 만들어 당 안에 모셨다.²⁷⁾

문수보살이 때때로 보천의 이마에 물을 붓고 성도기별(成道記別)을 주었다. 보천은 바야흐로 입적하는 날 후일 산중에서 행할 국가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 두었다. 기록은 다음과 같다. 청색방은 동대의 ... 중략 ... 적색방은 남대 남면에 ... 중략 ... 백색방인 서대 남면에 ... 중략 ... 흑색방인 북대 남면에 ... 중략 ... 황색방인 중대의 진여원<상원사> 중앙에 진흙으로 빚은 문수보살의 부동상을 봉안하고, 뒷벽에는 노란 바탕에 비로자나불을 수위로 한 36가지 변화하는 모양을 그려 봉안하고, 복전승 다섯 명이 낮에는 『화엄경』과 『6백 반야경』을 읽고, 밤에는 문수예찬을 염송하되, 이름을 화엄사(華嚴社)로 하여라.²⁸⁾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삼국유사』에 남아 있는 보천태자의 유언에 의하면 36가지의 문수보살의 화신을 그림으로 그려서 지금의 상원사에 봉안하고 늘 『화엄경』을 독송하고, 문수예찬을 하며 그 이름을 ‘화엄사(華嚴社)’로 하라는 것이다.

현재의 상원사는 1946년에 영산전을 제외하고 당우가 모두 화재를 입어 1947년에 복원한 것이다.²⁹⁾ 당시 한암은 문수전이 아닌 다른 별채에서 머물고 있었다고 하고³⁰⁾, 탄허 역시 출가하여 상원사 뒷방에서 묵

27) 『三國遺事』, 「塔像第四-臺山五萬眞身」, “每日寅朝, 文殊大聖, 到眞如院<今上院>, 變現三十六種形, 或時現佛面形, 或作寶珠形, 或作佛眼形, 或作佛手形, 或作寶塔形, 或萬佛頭形, 或作萬燈形, 或作金橋形, 或作金鼓形, 或作金鍾形, 或作神通形, 或作金樓形, 或作金輪形, 或作金剛杵形, 或作金甕形, 或作金鈿形, 或五色光明形, 或五色圓光形, 或吉祥草形, 或青蓮花形, 或作金田形, 或作銀田形, 或作佛足形, 或作雷電形, 或來湧出形, 或地神湧出形, 或作金鳳形, 或作金烏形, 或馬產師子形, 或雞產鳳形, 或作青龍形, 或作白象形, 或作鵲鳥形, 或牛產師子形, 或作遊猪形, 或作青虵形, 二公每汲洞中水, 煎茶獻供, 至夜各庵修道, ... 以神龍元年乃唐中宗復位之年聖德王即位四年也. 乙巳三月初四日, 始改創眞如院, 大王親率百寮到山, 營構殿堂并塑泥像文殊大聖, 安于堂中.”

2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주 삼국유사 III』, 이회문화사, 2003, pp.289-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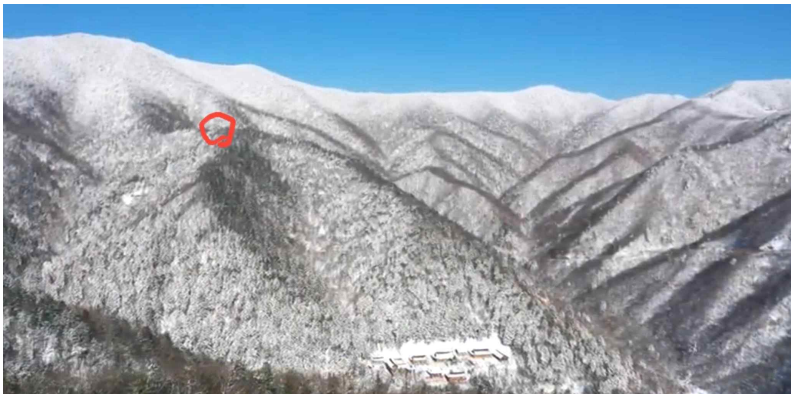
29) 문종덕, 「풍수지리와 사찰입지에 관한 연구: 5대 적멸보궁(寂滅寶宮)을 중심으로」, 세명대학교 부동산학과 석사학위 논문, 2020, p.43.

30) 월정사 주지인 정념스님의 증언을 토대로 한 것임.

언 참선을 했고, 그 이후엔 불교 이력 과정을 공부했다고 한다.³¹⁾ 1947년에 상원사를 다시 복원했다고 해도 모든 당우를 복원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1950년에는 한국전쟁이 발발했으므로 상원사의 당우와 문수동자상을 한암이 보존한 것만도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업적이었다. 그렇기에 1946년 이전의 상원사 도량은 모두 복원하지 못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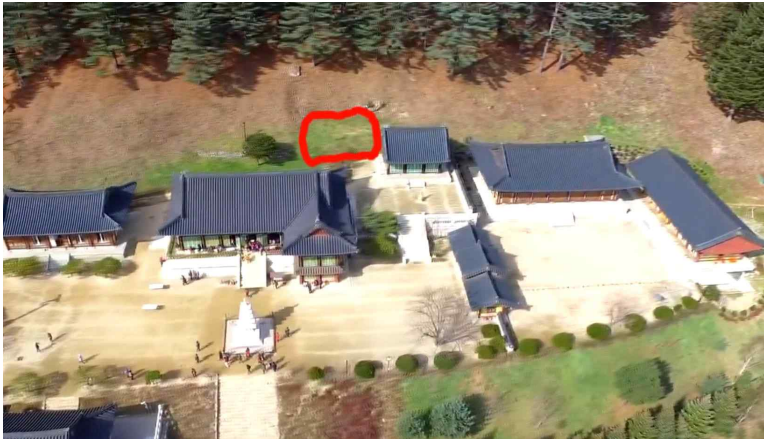
현재 상원사를 참배해 보면 문수전과 영산전 사이에 분명히 법당이 나 요사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닦아놓은 터가 비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넓지는 않지만 상원사의 주맥이 내려오고 있는 공간으로 보인다(<그림10> 참조). 이곳을 '진여원'으로 복원하고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36형의 문수보살의 화신을 벽화나 탕화로 장엄한 뒤, 보천과 효명태자(성덕왕)의 진영을 조성하여 모시고, 화엄사(華嚴社) 결사를 예전의 방식대로 진행하여 화엄도량의 역사를 잇는다면 한국불교 최고의 문수성지 가운데 하나인 상원사가 신라 시대의 전통까지 현대에 여범하게 계승한 천년고찰의 위상을 간직함과 동시에 화엄성지로서 새롭게 한국불교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 눈 덮인 적멸보궁과 상원사



31) 문광, 『탄허 선사(檀訥 仙師)의 사교회통 사상』, 민족사, 2020, pp.48-54.

<그림 10> 위에서 본 상원사 모습



III. 탄허의 화엄학적 풍수관

1. 오대산 고승들의 풍수 안목

중국 초당시절의 왕발(王勃)은 “인걸(人傑)은 지령(地靈)³²⁾이라 말했다. 훌륭한 인물은 훌륭한 땅의 기운을 받고 나온다는 것이다. 오대산과 같은 명산에서는 걸출한 고승들도 많이 출현했는데,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풍수지리학에도 일가견을 갖추었다.

자장 율사의 풍수 안목은 앞 장에서 이미 논한 바 있으며 오대산뿐만 아니라 통도사의 사리 봉안에서나 태백산 정암사의 적멸보궁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자장 율사의 풍수 안목과 개산(開山)에 대해서는 영축산의 개산과 정암사에서 문수보살을 기다렸던 역사 등에서 이미 그 전모가 드러나 있고 다양한 연구성과들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³³⁾

32) 王勃, 「滕王閣序」, 『古文眞寶』.

33)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다음 논문을 참조. 자현, 「慈藏과 華嚴의 관련성 고

보천과 효명 두 신라 왕자의 청정한 수행과 원력은 오대산의 명당을 발굴해 내어 오대(五臺)를 형성하고 문수 성지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두 태자와 관련된 서대 수정암의 우통수(于筒水) 역시 한강의 시원으로서 다시 한번 재인식될 필요가 있겠다.³⁴⁾ 그동안 꾸준히 언급되어 왔던 역사와 전통을 무시한 채 단순히 길이에 의해서 1987년에 국립지리원에 의해 검룡소가 한강의 최장 발원지로 인정되었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통수는 신라 시대부터 성수(聖水)로 공양을 올린 물이며, 풍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득수(得水)인데 민족역사의 성지인 오대산의 성스러운 물을 한강의 역사에서 폐기한다는 것은 아쉬운 결정이다. 오대산의 우통수를 한강의 시원으로 같이 거론함이 좋을 듯하며 민족의 성수(聖水)라는 상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한국의 전통문화의 보존 차원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나옹(懶翁, 1320~1376) 선사는 조선의 왕사이자 국풍(國風)이었던 무학대사의 스승이다. 나옹은 풍수학의 안목으로 황희 정승이라는 명재상을 세상에 낳게 한 장본인이다. 전북 순창의 회문산에는 도선국사가 점지해 놓았던 오백 년 동안 찾지 못한 홍곡단풍형(鴻鵠斷風形: 기러기가 바람을 가르며 날아오는 형국)의 명당이 있었다. 나옹은 이를 찾아 장수 황씨에게 소점하였다. 그 음덕으로 태어난 인물이 세종 때 명재상이었던 황희 정승이었으니 나옹이 풍수 안목을 통해 역사에 끼친 공덕 역시 크다고 할 수 있다.³⁵⁾

나옹의 이러한 풍수의 안목은 그대로 제자 무학(無學, 1327-1402)에게 이어졌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오대산 북대 미륵암은 나옹이 수행했던 도량으로 절벽 근처의 나옹대(懶翁臺)가 진혈 명당이라고 오대산 문

찰- 中國五臺山 文殊親見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77, 한국불교학회, 2016; 자현, 「慈藏의 五臺山 開創과 中臺 寂滅寶宮」, 『한국불교학』 67, 한국불교학회, 2013.

34) 자현, 『월정사의 유래와 한강의 시원』, 운주사, 2011, pp.109-200

35) 김성수, 『명당에서 부자난다』, 신아출판사, 2009, p.7.

도스님에게 대대로 전해져 오고 있다. 이러한 숲은 명당을 찾아서 정진할 수 있을 만큼 나옹의 풍수 정안은 활짝 열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옹대에서는 적멸보궁이 보이며 선사는 매일 보궁을 향해 예불을 모셨다고 한다. 나옹의 법맥을 이은 무학대사는 나옹의 풍수 안목을 이어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스승의 사리탑을 모신 여주의 신흥사와 양주의 회암사 부도 탑 자리 역시 명당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나옹 - 무학의 법맥이 불교적 안목뿐이 아니라 풍수 안목의 계승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학과 함께 나옹의 또 다른 제자로 추정되는 『초발심자경문』의 「자경문(自警文)」의 저자 야운 각우(野雲 覺牛)³⁶⁾는 “새도 쉬려고 하면 반드시 그 숲을 가리는데 사람의 거처에 어찌 땅을 가리지 않겠는가?(鳥之將息, 必擇其林, 人之居處, 豈不擇地乎.)”라는 풍수서의 구절을 바꾸어 “새도 쉬려고 하면 반드시 그 숲을 가리는데 사람이 배움을 구하는데 곧 스승과 벗을 가리느니라(鳥之將息 必擇其林 人之求學 乃選師友)”³⁷⁾로 바꾸어 놓고 있다. 이는 야운 비구가 풍수학에도 밝았음을 보여주는 한 증거로 나옹 선사는 제자 야운에게도 풍수의 안목을 가르쳤던 것은 아닌가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암은 조계종의 초대 종정으로서 봉은사의 조실로 주석하다가 유명한 계승인 “천년의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삼춘에 말 잘하는 앵무새는 되지 않겠다.”는 언구를 남기고 홀연히 오대산 상원사로 칩거하여 동구불출했다. 선사가 오대산을 선택한 데에는 상원사와 중대 적멸보궁의 풍수학적 입지를 반드시 고려했을 것이며 그러한 안목은 제자인 탄허에게 곧바로 전해져 내려왔다.

36) 야운 각우 스님에 대한 생애와 행적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

37) 야운, 「자경문」, 『초발심자경문』.

<그림 11> 북대 나옹대



<그림 12> 북대 나옹대에서 바라본 적멸보궁 방향



2. 탄허와 풍수

탄허는 도(道)와 술(術)의 관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끊어져서 모르는 것이 없어진 것을 도라고 하고, 많이 알아서 쌓인 것을 술”³⁸⁾이라고 구분했다. 그는 또 “외도(外道)란 없다”고 하며 “마음 밖의 것을 논하면 외도이지만 마음을 논한다면 모든 것이 불법이요 내전이 될 수 있다”라고 까지 했다.³⁹⁾ 이처럼 탄허와 같은 방식으로 넓게 사유하게 된다면 풍수지리학을 내전이 아닌 외도라고 도외시할 수 없을 것이며, 풍수에 안목을 갖추었던 역대 고승들의 풍수학을 도학(道學)이 아니라 술학(術學)이라고 폄하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탄허는 역학과 풍수에도 능했던 해운(海雲) 거사가 1975년에 고급의 관상학(觀相學)을 집대성하여 『최신관상학』이라는 책을 저술하여 서문을 부탁하자 “성인은 마음을 말할 뿐 상(相)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인이라고 하여 사람을 관찰하는 학문이 없는 것은 아니다.”⁴⁰⁾라고 하며 석가, 공자, 맹자, 장자의 사람의 상(相)을 살피는 학문이 있었음을 역설했다. 본래 풍수학은 땅의 상(相)을 살피는 학문으로 인상(人相)을 살피는 관상학과 함께 동양학의 중요한 한 분야였다.

탄허는 풍수지리학 분야에서 탁월한 안목을 갖추었으며, 일생동안 많은 도량을 창건 내지 복원하였고, 다양한 처소에서 주석하면서 터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법문을 설했고 풍수학과 관련된 다양한 일화를 남겼다.

탄허는 오대산 월정사에 중국의 화엄학자인 이통현 장자가 『화엄론』을 썼던 방산굴(方山窟)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스스로 요사체를 짓고 ‘방산굴’이라 명명했다. 방산굴은 1962년 영은사 3년 결사를 마치고 월정

38) 문광 편저, 『탄허사상 특강』, 교림출판사, 2022, pp.243-244.

39) 김탄허(강해), 『탄허스님 간추린 법문 테이프 (4)』, 교림, 1983.

40) 오대산 문도회 · 탄허불교문화재단 · 교림 편, 『탄허대종사 연보』, 교림, 2012, p.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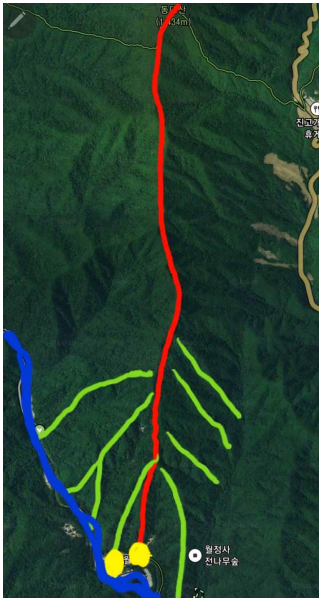
사로 들어와서 『화엄경』을 번역하는 불사를 하기 위해 새로 지은 건물이다. 원래 방산굴 터에는 월정사에서 소임을 보며 살던 대처승의 가족들이 8-10채 정도의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를 모두 정리하고 방산굴을 짓고 『화엄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탄허는 방산굴의 터가 풍수적으로 볼 때 좋은 터라고 하면서 마루에서 앞의 안산 쪽의 전망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⁴¹⁾ 스님은 이 방산굴 자리가 웬지 전생에 와 본 적이 있는 곳 같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재래암(再來庵)’이라는 이름을 명명하려고 했다고 한다.⁴²⁾ 인근의 비구니 스님 도량인 육수암(六手庵) 역시 스님이 직접 잡은 터이다.

월정사를 풍수지리학적으로 살펴보자면, 큰 법당인 적광전으로 내려오는 용맥인 만월산(滿月山)이 강력한 기세를 자랑한다. 이 만월산은 월정사의 주맥 역할을 함과 동시에 현재의 만월선원과 방산굴의 우백호 역할도 해 주므로 장풍(藏風)에 특히 유리한 형세를 형성하고 있다(〈그림 14〉 참조). 탄허는 만월산의 이 강력한 기운을 이용하여 일생의 대사업인 『화엄경』 불사를 위한 우백호를 삼고 방산굴 터전을 잡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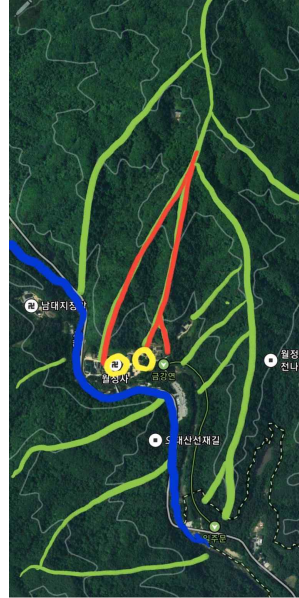
41) 민족사 윤창화 사장의 증언이다.

42) 재가제자 명호근의 증언이다.

<그림 13> 월정사의 용맥도 (1)



<그림 14> 월정사의 용맥도 (2)



<그림 15> 방산굴 전경



<그림 16> 방산굴 현판



탄허의 풍수 안목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69년에 계룡산 자락인 대전 유성 학하리의 우암 송시열의 집성사(集成社) 터를 구하여 자광사(慈光寺)를 창건하면서부터다. 학하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양택 명당으로 별봉이라 불리는 추성봉(樞星峯)이 평지에 돌출해 있다. 탄허는 이곳을 동양 천문도에서 말하는 자미원국의 축소판으로

보았는데 추성봉은 바로 북극성을 말하는 곳이다. 자광사에서 탄허는 많은 번역과 집필을 하였는데 항상 서문의 마지막에 ‘추성봉하(樞星峯下) 장경각(藏經閣)’에서 글을 쓴다는 문장을 남긴 바 있다. 평소에 ‘오대산인(五臺山人)’이라는 구절과 함께 ‘추성봉하’를 쓴 것은 계룡산을 한국 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정신수도(神都)가 될 것이라고 했던 그의 간산사상(艮山思想)⁴³⁾을 잘 드러내 주는 구절로 그 바탕에 지리학(地理學)과 천문학(天文學)을 결합한 풍수관이 드러난 대목이다.

탄허의 풍수관을 알 수 있는 일화들이 있다. 탄허에게 청년 불자들이 오대산에만 머물지 말고 서울로 나오시라고 간청을 드렸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탄허는 서울로 나온다고 할 때 먼저 풍수적 관점에 입각한 본인의 입지에 대한 사유를 밝힌 바 있다.

큰스님에게 오대산 산속에만 계시지 말고 서울에 올라오셔서 일반 대중을 위한 활동을 해 달라는 간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은 이화장, 이승만 대통령이 살던 집을 빌려주면 나와서 국사를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은 통 안에서는 통을 굴릴 수 없다고 하시면서 통 밖으로 나와서 통을 굴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에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⁴⁴⁾

동승동의 이화장(梨花莊)에는 이승만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내각을 구성했던 조각당(組閣堂)이 있다. 이곳은 명당으로 소문이 나 있는 곳으로 낙산에서 곧장 내려오는 강력한 바위 용맥의 힘이 온통 조각당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기상이 남다르다. 조각당에서는 한눈에 서울의 북악산, 인왕산, 남산을 모두 조망할 수 있다. 연세대 뒷산인 안산(鞍山)이 눈앞에 문필봉으로 우뚝 솟아 있어 평범한 이들이 보아도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매우 특별한 터이다. 탄허는 이곳을 빌려주면 국가의 대사를 한

43) 문광, 『탄허학 연구』, 조계종출판사, 2021, pp.233-240.

44) 월정사·김광식 편, 『방산굴의 무영수』 (하), 오대산 월정사, 2012, p.229. 제자 명호근의 증언.

번 보러 나가겠다고 했던 것이다. 기왕 세속에 나올 것이라면 현실에 크게 기여할 만한 일을 해 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던 것으로 이화장의 풍수적 가치를 알고 말한 것이다. 탄허는 이승만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4.19는 역학적으로 젊은 청년[少男]의 나라인 간방(良方)인 한국에서 일어난 세계적인 사건으로 보았으므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탄허가 이화장을 자신의 거처로 언급한 것은 풍수적 안목에 입각한 것이다.

훗날 탄허는 서울에 주석할 일이 있었는데 서울의 동북방인 간방(良方)인 개운사 대원암에 주석하며 『화엄경』을 번역했다. 이화장에는 머물지 못했으나 쌍용양회 김성곤 회장의 부인인 김미희 여사의 외호로 흥선대원군의 별장인 석파정(石坡亭)을 얻어 제자들과 함께 원고 교정을 보기도 하였다. 이 모든 것이 풍수학적인 고려가 있었던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의 동작동 국립묘지 부지가 부족하게 되자 다른 곳에 국립현충원을 확보하기 위해 탄허에게 좋은 터를 찾아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이때 자신의 집안 조카뻘인 지관 박영출과 함께 터를 볼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헬기까지 내주었다고 한다. 이때 잡은 터가 바로 지금의 대전 국립현충원 자리로 1976년에 미리 터를 보아두었다가 1979년에 착공하였던 것이다.⁴⁵⁾

노태우가 현재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 자리에 위치했던 수도경비사령부의 사령관으로 있을 때 군법당을 건립하기 위해 탄허에게 간청하여 터를 잡은 곳이 바로 충정사(忠正寺)로 뒤에 수경사가 자리를 이전한 뒤에도 지금까지 사찰은 남아 참배객을 맞고 있다.

탄허의 풍수학과 관련된 일화는 이 밖에도 다양하다. 많은 장소를 옮기며 번역과 교정을 보았는데 어떠한 때에는 장소를 따질 상황이 되지 않기도 했지만 가능하면 반드시 풍수적 고려를 했다고 하며, 오대산과 계룡산을 오가며 유불선 삼교의 동양 정신을 집필하고 강의할 때 반드시

45) 문광, 앞의 책(2021), p.230. 교림출판사 서우담 사장의 증언.

시 입지를 고려함으로써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기에 적합한 터를 선별했던 것을 알 수 있다.

3. 화엄학의 무애와 차별지로 풍수학 수용

탄허의 풍수관의 근거에는 전통적인 동양학의 풍수 이론의 영향 이외에도 화엄의 무애(無碍)와 차별지(差別智)에 바탕한 불교의 포용성을 바탕으로 한 풍수관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그의 풍수관을 화엄적 풍수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화엄학을 비롯한 불교 교리에서는 근본지(根本智)와 차별지(差別智)를 나누어서 설명한다. 근본지는 문수지요 차별지는 보현행이라 하기도 하고, 근본지는 일체지(一切智)요 차별지는 일체종지(一切種智)라고 하기도 한다. 동양학에서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에 대해 탄허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늘은 형태를 초월했고, 땅은 형태의 유한성 속에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고 역설했다.⁴⁶⁾ 『주역』 「계사전」에서 말하는 형이상(形而上)의 도(道)는 무형(無形)의 천원(天圓)이요, 형이하(形而下)는 유형(有形)의 지방(地方)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늘은 근본지이자 진공(眞空)이며 평등하고, 땅은 차별지이자 묘유(妙有)이며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천기(天氣)가 하림(下臨)하고 지기(地氣)가 상승(上昇)하여 천지(天地)가 항상 교유하고 있는 것이지만 세부적으로는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땅들이 나름의 차별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하늘의 보편과 땅의 특수 속에서 삼재(三才)의 영장인 인간은 천지 사이에서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존재이다. 그렇기에 보편과 특수, 평등과 차별의 천지 속에서 어떻게 불평등한 것을 평등하게 나누고, 진

46) 김탄허(강의), 『화엄경 테이프 본강(7)』, 신흥사(화성), 1978.

공 속에서 묘유를 발견하느냐 하는 것은 인간의 책무이자 최대의 관심사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불교나 유교, 동양과 서양에 상관없이 영원한 인간의 과제 상황이라고 할 때, 하늘-땅-인간의 관계를 불교를 비롯한 사상적인 측면에서 정리해 본다면 아래의 표와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 하늘-땅과 근본지-차별지의 융섭⁴⁷⁾

	하늘(天)	땅(地)	인간(人)
화엄학	근본지(理)	차별지(事)	이사무애(理事無碍)
선학	전기(全機)	대용(大用)	기용제시(機用齊施)
서양철학	보편/본체	특수/현상	불이(不二)
사회학	평등	불평등	평등과 불평등의 중용
불교일반	진공(眞空)	묘유(妙有)	중도(中道)
기신론	진여문	생멸문	일심(一心)
육바라밀	정(定:선정)	혜(慧:반야)	정혜쌍수(定慧雙修), 지관겸수(止觀兼修)
유교	이일(理一)	분수(分殊)	이일이분수(理一而分殊)

근본지가 본질에 해당하고 수행과 공부의 근본이자 첫걸음이지만, 근본지가 갖추어지고 나면 차별지를 닦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 불교 수행의 근본이다. 차별지에 통달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낱낱이 지혜롭게 보지 못한다.

풍수지리학은 근본지를 바탕으로 하되 차별지 역시 환히 터득하여

47) 이 표는 논자가 화엄학의 근본지와 차별지, 일체지와 일체중지, 선학의 대기(大機)와 대용(大用), 기신론의 진여문과 생멸문의 기본 도식을 활용하고 유교의 이기론과 서양철학의 본체와 현상을 이에 배대한 뒤 동양 역학의 양의(兩儀)인 천지(天地)와 음양(陰陽)과 함께 논하기 위해 구성한 것이다. 이것은 탄허의 사상을 하나의 표로 구성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문광, 『한국과 중국의 유교 중화 담론』, 불광출판사, 2020, p.285 참조.

정안(正眼)을 갖추어 복잡한 지리(地理)를 꿰뚫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이는 이론만으로 되는 일도 아니요, 실천적으로 쉽게 터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부단한 노력과 다양한 차별의 세계를 투과해야 일가의 안목을 이룰 수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고래로 풍수 대가의 안목이란 신안(神眼)이 열리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했으며, 불교의 고승들이 도통하는 것과 동일한 깨침의 세계로 논해지기도 했다.⁴⁸⁾

실제로 역사상 풍수지리학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지를 보여주었던 인물들에 스님들이 많았던 것 역시 이와 같은 깊은 수행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간혹 풍수지리학을 미신으로 치부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도 완전무결한 안목을 갖춘 풍수학의 대가를 쉽게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불교의 선수행에서도 차별지를 터득한다는 것은 극도로 어렵듯이 풍수지리학의 세계에서든 구체적이면서도 낱알이 땅의 실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온전한 안목을 갖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안목이 열리는 것을 중시했던 풍수학의 역사에서 불교와 풍수의 만남은 실제로 커다란 빅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풍수지리학의 세계는 불교의 차별지와 견줄 수 있을 만큼 난해하고 복잡한 미묘법의 세계인 것이다.

탄허는 일체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등한 진여문인 근본지인 근본 자성자리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낱알의 세계마다 각각 다른 생멸문인 차별지를 인정하여 모든 사상과 종교를 회통하고 융섭하는 방대한 포용성을 지닌 선사였다. 그는 이사무애(理事無礙)와 사사무애(事事無碍)의 화엄 법계관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학문과 술학까지 무애사상을 통해 포섭한 바 있다.⁴⁹⁾ 탄허의 회통정신의 근본인 무애사상은 풍수학의 수용과 포섭에까지 이어져서 그의 풍수관으로 정립되어 특유의

48) 김성수, 앞의 책, pp.271-284. 이론과 실천 양방면에서 풍수지리학적인 안목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참조.

49) 탄허의 화엄의 무애사상과 회통원리에 관해서는 문광의 앞의 책, 『탄허 선사의 사교회통 사상』, pp.103-144를 참조.

계룡산 신앙인 간산사상으로 발현되었다. “계룡산 신도안(新都案)이 후 천시대의 국가의 중심터전이 될 것”⁵⁰⁾이라고 설파한 그의 국기풍수(國基風水) 담론도 무애사상을 근간으로 한 화엄적 풍수관에 입각했던 것이다.

3. 보현보살행으로서의 대승풍수와 공익풍수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불교 풍수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를 더 짚어 볼 필요가 있겠다. 명당터를 찾아 사찰이나 수행처를 마련해 왔던 고승들의 발자취를 볼 때, 불교적 차원에서 활용된 풍수지리학이라는 것은 차별되고 불평등한 땅 가운데 생기처(生氣處)의 명당을 발견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요익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에 근본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수행과 노력을 통해 안목을 갖추고 좋은 명당을 얻게 되면 어떻게 만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 불교 풍수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좋은 땅은 유한한데 사용하고 자 하는 사람은 많다. 이러한 환경 조건에서 풍수에 밝았던 역대의 고승들은 보다 많은 중생을 요익하게 하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천년 고찰을 우리에게 물려주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된다. 이를 불교풍수가 ‘대승풍수’이자 ‘공익풍수’의 함의를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⁵¹⁾

천년고찰을 살펴보면 가장 좋은 명당 혈처를 스님들만 사용하는 요사채로만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오대산의 적멸보궁처럼 누구나 찾아가서 평등하게 그 터를 향유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어차피 불공평한

50) 탄허는 현재의 세종시인 공주시 장기면으로 임시 행정 수도를 이전하고 계룡산 신도안으로 최종적으로 수도를 이전한다는 종합 계획을 박정희 대통령이 세울 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광, 앞의 책 2021, pp.233-235. 동국대(경주) 김성철 교수의 증언 참조.

51) 문광, 『한국학에세이(12): 불교풍수는 대승풍수이자 공익풍수』, 『불교신문』, 2020.07.17.

땅이라면 그 명당 터를 찾아서 부귀한 사람들만이 독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하고, 기왕 사용한다면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과 기도, 정진과 보살행을 위한 도량으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불교풍수의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불교 본연의 대승보살행의 실천이자 보현보살의 이타행과 자비행에 다름아닌 것이다.

유교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정신은 유가 정신의 핵심이며,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이상은 유가 선비의 근본 정신이다. 불교풍수와 유교풍수의 근본 정신이 다를 수는 없다. 언제나 사람들의 욕망과 소유욕이 문제일 뿐이다. 종교와 사상을 막론하고 물질문명에서 헤어날 수 없고 물신숭배에 젖어 있을 때에는 늘 소승풍수와 사익풍수가 대두되었으니 이는 풍수학의 영원한 마장이자 장애일 것이다. 이능화는 “장매조선해골(葬埋祖先骸骨)하야, 희구자손부귀(希求子孫富貴)하니, 풍수미신사상(風水迷信思想)은 시위쇠망원인(是爲衰亡原因)이라.”⁵²⁾하여 조선의 패망원인 중의 하나로 풍수를 지적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앞서서도 살펴 보았듯이 오대산의 적멸보궁만은 천하의 명당으로 극찬하여 향화가 끊어지지 않음을 자궁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불교의 풍수학이 자리(自利)의 충족만이 아니라 이타(利他)의 완성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때에는 현실적인 대승풍수와 공익풍수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총무원장을 지냈던 월주스님은 탄허 스님에게 『화엄경』 강의를 들었는데 “지증보살(智增菩薩)보다 비증보살(悲增菩薩)의 공덕이 더 크다. 즉 문수의 지혜보다 보현의 자비행이 더 수승하다”는 설명을 듣고 평생 보현행을 실천했다고 한다.⁵³⁾

52) 이능화, 「풍수사상의 연구-제1장 묘지에 관한 풍수사상」, 『조선(朝鮮)』 제154권, 1930, pp.27-28.

53) 송월주,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다: 태공 월주 큰스님 법문집』, 민족사, 2016, p.233.

탄허가 강조한 비증보살의 자비행이라는 영역 안에 풍수학 역시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오대산의 화엄성지의 복원과 계룡산의 자광사 창건에서 중생을 위해 풍수적 안목에 입각한 불사를 보여주었다.

오대산은 화엄학의 근본 도량이자 문수 성지로 천 년 이상 대승정신과 요익중생을 위해 존재해 왔다. 무수한 화재와 법난의 재난들도 이 도량을 끝내 훼손시키지 못했다. 한반도에서 가장 명당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오대산 적멸보궁에서는 이 땅의 모든 중생들의 복락과 해탈을 위해 지금도 향화(香火)가 이어지고 있다. 오대산의 역대 고승들의 안목과 일연, 이능화가 남긴 역사자료에서 오대산이 한반도의 가장 수승한 명당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이는 한국의 불교풍수가 요익중생을 위한 대승적 특색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역대 오대산의 고승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으며, 특히 탄허의 경우에는 불교 밖의 모든 사상과 전통을 회통하고 융합하여 화엄적 무애와 차별지의 인정을 통해 풍수학을 수용하는 적극적인 보현 보살행으로서의 풍수관을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듯 오대산의 역대 고승들의 안목과 행보는 신라의 자장에서 현대의 탄허에 이르기까지 한국적 풍수지리학의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역사를 형성하고 있다. 즉 오대산의 풍수지리학적 위상은 한국의 불교 풍수 전반의 특징을 추출해 볼 수 있는 측면도 담지하고 있으며, 탄허는 그 좋은 전범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화엄학의 성지인 오대산의 풍수지리적 위상과 탄허의 화엄적 풍수관에 대한 연구는 향후 한국 불교의 풍수학적 특질을 추출하는 복잡한 연구 과정에 일말의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게 된다.

IV. 맺음말

오대산은 일연의 『삼국유사』에서 국내 최승(最勝)의 불법장흥(佛法長興)의 명당으로 소개되었다. 본고는 이능화가 『조선불교통사』에서 오대산 적멸보궁을 ‘산중명당(山中明堂)’으로 대서특필하고 자장 율사가 불뇌 사리를 직접 봉안한 것이라는 결정적인 언급을 함으로써 풍수지리학 적 위상이 더욱 높아지게 된 지점을 주목하여 연구의 실마리로 삼았다.

우선 『조선불교통사』에서의 오대산의 풍수학적 언급에 주목하며 적멸보궁과 상원사의 풍수지리학적 면모를 역사적, 고증적 측면에서 재고찰해 보았다. 이능화는 오대산 적멸보궁의 성소(聖所)로서의 면목을 강조하며 한국 불교사에서 오대산의 위상을 풍수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논자는 상원사의 풍수를 재고하면서 보천 태자가 상원사의 진여원(眞如院)을 화엄사(華嚴社)로 발전시키라고 했던 유언에 주목했다. 한암이 한국전쟁의 화마로부터 보존한 상원사 문수도량은 탄허로 이어지면서 근현대의 『화엄경』 대작불사의 역량이 집결되었던 곳이다. 이곳을 보천의 유언과 융합하여 새롭게 문수보살의 성지로 발전시킨다면 천하의 명당 길지인 오대산의 화엄성지는 더욱 본래적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았다.

오대산은 자장 율사의 개산 이래 보천과 효명 태자를 이어 나온 선사에 이르러 다시 한번 풍수안목에 포착된 곳이기도 하다. 한국의 자생 풍수의 비조로 도선 국사가 언급되지만 이미 그 이전에 명당길지이자 성지로 자리 잡은 오대산은 근현대의 한암을 이은 탄허의 풍수 해안에 의한 대작불사를 통해 한국적 풍수의 특징이 드러나는 명승지로 한층 대두되었다.

탄허가 가진 풍수학에 대한 관점을 본 고에서는 화엄학적 무애와 차

별지에 입각한 광대한 회통과 융섭의 정신으로 설명해 보았고, 여러 풍수학과 관련된 일화들과 행적을 통해 그가 가진 풍수관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처럼 오대산의 풍수지리학적 위상과 탄허를 비롯한 역대 고승들의 풍수 안목을 바탕으로 고찰해 볼 때, 불교 풍수가 가지는 공익풍수와 대승풍수로서의 성격은 화엄학의 보현보살행의 자비행과 이타행과 잇달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견해를 제시하게 되었다.

오대산이 가지는 풍수지리학적 위상과 탄허의 화엄학적 풍수관은 향후 한국 불교의 풍수지리학의 심층적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갖는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불교학계와 풍수지리학계는 상호 융합적 연구를 통해 이와 관련된 보다 깊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五臺山 事跡記』

大慧 宗杲, 『答鼓山逮長老』, 『書狀』

王勃, 『滕王閣序』, 『古文眞寶』

野雲, 『自警文』, 『初發心自警文』

일연 찬, 『삼국유사』, 대정장49.

閔漬 撰, 『奉安舍利開建寺庵第一祖師傳記』

김동규 역저, 『人子須知』, 명문당, 2008.

김두규, 『국운풍수』, 해냄, 2019.

김성수, 『명당에서 부자난다』, 신아출판사, 2009.

_____, 『명당』, 신아출판사, 2013.

김탄허(강의), 『화엄경 테이프 본강(7)』, 신흥사(화성), 1978.

_____(강해), 『탄허스님 간추린 법문 테이프 (4)』, 교림, 1983.

문 광, 『탄허 선사의 사교회통 사상』, 민족사, 2020.

_____, 『탄허학 연구』, 조계종출판사, 2021.

_____, 『한국과 중국의 유교 중화 담론』, 불광사, 2020.

문광 편저, 『탄허사상 특강』, 교림출판사, 2022.

박정해, 『사찰에서 만나는 불교풍수』, 씨아이알, 2016.

송월주,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다: 태공 월주 큰스님 법문집』, 민족사, 2016.

오대산 문도회 · 탄허불교문화재단 · 교림 편, 『탄허대종사 연보』, 교림, 2012.

월정사 · 김광식 편, 『방산굴의 무영수 (하)』, 오대산 월정사, 2012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역주편찬위원회 역편, 『역주 조선불교통사 4 : 하편 이백품제(1)』,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0.

자 현, 『월정사의 유래와 한강의 시원』, 운주사, 2011.

정석풍수연구학회, 『풍수유적답사기 : 강원도편』, 청어람 M&B, 2019.

村山智順, 정현우 역, 『한국의 풍수』, 명문당, 2009.

한국불교연구원, 『월정사』, 일지사. 198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주 삼국유사 Ⅲ』, 이회문화사, 2003.

문 광, 『華嚴學과 易學을 통해 본 呑虛의 艮山思想 - 오대산과 계룡산의

- 의미망을 중심으로 -, 『정토학 연구』 31, 한국정토학회, 2019.
- 문종덕, 「풍수지리와 사찰입지에 관한 연구 : 5대 적멸보궁(寂滅寶宮)을 중심으로」, 세명대학교 부동산학과 석사학위 논문, 2020.
- 민병삼, 「도선국사의 풍수사상과 풍수담론」, 『국학연구』 27, 한국국학진흥원, 2015.
- 박정해, 「오대산 적멸보궁 입지의 풍수환경과 해석」, 『동아시아 불교문화』 23,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5.
- 박혜정, 「현대 에너지 장론을 적용한 사찰풍수 연구 : 五大寂滅寶宮을 중심으로」,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7.
- 이강근, 「상원사 적멸보궁의 건축사적 의의」, 『월정사 성보박물관 학술총서』 3, 월정사 성보박물관, 2002.
- 이능화, 「풍수사상의 연구-제1장 묘지에 관한 풍수사상」, 『조선(朝鮮)』 제154권, 1930.
- 이학동, 「五臺山 寂滅寶宮의 立地形勢와 風水地理의 解析」, 『역사와 실학』 14, 역사 실학회, 2000.
- 자 현, 「慈藏과 華嚴의 관련성 고찰- 中國五臺山 文殊親見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77, 한국불교학회, 2016.
- _____, 「慈藏의 五臺山 開創과 中臺 寂滅寶宮」, 『한국불교학』 67, 한국불교학회, 2013.
- James Robson, *Power of place: The Religious Landscape of the Southern Sacred Peak(Nanyue南嶽) in Medieval China*, Harvard University Asia Press, 2009.
- 문 광, 「한국학에세이(12): 불교풍수는 대승풍수이자 공익풍수」, 『불교신문』, 2020.07.17.

Abstract

The Feng Shui Geographical Status of Odaesan Mountain and Tanhe's Feng Shui Perspective of Flower Ornament Study

Kwon, Ki-wan(Mun-kwang)
(Educational Preceptor,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Odaesan Mountain is already recorded as a propitious site in terms of feng shui geography in *Legends and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In particular, Japanese colonial era Lee Neung-hwa recorded Odaesan sacred buddha relic temple as a “mountainous propitious site where Buddha’s sarira is enshrined” through a history of *History of Choseon Buddhism*. As a result, the feng shui aspect was highlighted, and it left an article that convinced the Jajang preceptor enshrined the Buddha’s sarira.

This study analyzed the status of Odaesan Mountain in Korea’s feng shui geography by reconsidering Odaesan Mountain, sacred buddha relic temple, Sangwonsa Temple, and Woljeongsa Temple, which were written as ‘propitious site’ in Lee Neung-hwa’s historical records. In addition, we looked at the feng shui geography perspectives of Jajang, Bocheon, Hyo-myeong, Na-ong, Han-am, and Tanheo, which are the previous masters of Odaesan Mountain, and examined how the feng shui perspectives of high priests differ from Confucian feng shui.

Buddhist monk Tanheo accepted the theory of feng shui in a Buddhist way based on the idea of Flower Ornament Study just as unobstructed thought and distinctive wisdom. His broad ideas can be seen as representative of the view on feng shui geography of Korean Buddhism.

In order to extract the fundamental meaning of Korean feng shui, I

first presented the spirit of 'distinctive wisdom' in Flower ornament Study, and the spirit of Great vehicle feng shui, Public Pungsu as concepts of Buddhist feng shui distinct from Confucianism. I would like to continue my research to extract the characteristics of Buddhist feng shui through the feng shui status of Odaesan Mountain, which can be said to be the center of Korea's Buddhist feng shui.

Key words

Odaesan Mountain, feng shui geographic study, sacred buddha relic temple(寂滅寶宮), Lee Neung Hwa(李能和), Tanheo(呑虛), Flower Ornament Study, unobstructed thought, distinctive wisdom, Great vehicle feng shui(大乘風水), Public feng shui(公益風水)

논문투고일 : '22. 04. 30. 심사완료일 : '22. 05. 25. 게재확정일 : '22. 05. 25.